

『토마스 베리 평전- 생태 사상의 선구자』

메리 에벌린 터커 외 지음, 이재돈·이순 옮김, 서울: 파스카, 2023.

김용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영성·철학상담 협동 박사과정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이다.”(239, 410)¹⁾ 우리는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 이후 “토마스”)가 지나온 역사의 격변 보다 더 큰 변화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양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 대대적인 기후 변화와 지구 생태계 붕괴까지,(20-23) 그가 작고한 이후에도 파국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팬데믹 위기, 신 냉전 또는 세계 경제 블록 간 분쟁을 촉발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구 기온 상승과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재난 등이 그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는 “행성 지구의 모든 것, 심지어 전 우주의 모든 것이 참여하는 위대한 전례”(203)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의해 기록된 삶의 여정을 통해 토마스는 우리들을 “새로운 이야기- 지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진화의 서사시”(202)로 초대하고 있다. “어떤 서사든 다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진화의 서사시는 우리에게 우주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현재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만물이 생성되는 곳에서 궁극의 신비를 다룰 수 있다.”(202)

윌리엄 네이션 베리(William Nathan Berry)는 “1935년에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중

1) 괄호 안의 숫자는 『토마스 베리 평전- 생태 사상의 선구자』의 인용 및 참고 페이지 수.

세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을 따라 토마스로 수도명을 정한 이후로는 평생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30) 토마스의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방대하고 치밀한 생태 사상에는 아퀴나스를 비롯하여 동서양을 관통하는 다양한 사상적 층위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역사 철학자 “[지암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는 토마스의 사상이 짝 트게 한 배아 역할을 하였다.”(297) “토마스는 비코가 환원적 이성, 특히 데카르트식 방법을 비판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 비코의 관점에 기대어 토마스는 결국 우리는 인간과 자연계의 연결 관계를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98, 299) 이러한 관점은 근대 이후 소위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또한 “처음에 토마스는 비코의 역사 철학 외에도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복잡한 양식, 그리고 거룩하고 신비스런 방법으로 시간을 해석한 그리스도교 사상에 많이 기대었다.”(301) “성경의 시대 구분과 비코의 역사 시대의 체계화에 영향을 받은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화적 시대의 역사적 순서는 부족·사면 시대, 신석기 춘락 시대, 고전 문명 시대, 과학-기술 시대,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생태 시대로 나눌 수 있다.””(303) 이로부터 이전 시대와 상호작용하는 생태대(Ecozoic Era)가 부각된다.

나이가 “토마스는 우주론적 이야기들이 인류를 보다 큰 생명의 매트릭스 안에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이야기에 소홀하게 된 요즘처럼 우주론적 이야기가 무너져 버릴 때 인간 공동체에는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뚜렷한 모습은 의미를 지니는 보다 큰 우주로부터 공동체가 배제되는 것이다.”(307) 산업문명의 이기로 눈꺼풀이 덮일 때 창조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는 “환경 파괴를 인간 공동체가 지나친 소비와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 방향 설정을 다시 하라는 요청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계의 대멸종을 막기 위해 소비 욕구를 자제하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감수성은 다름 아닌 ‘새로운 이야기’에 눈뜨는 것이며, 인류는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공동체가 꽃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들이 끼치는 악영향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본 것이다.(308)

9장 이후로 정리된 토마스의 배경이 되는 사상가들은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벽찰 정도이다. 일단 “히포의 아우구스티노(354-430),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1265-1321),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영국의 세계 문명 역사가인 아널드 J.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 독일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에릭 뢰켈렌(Eric

Voegelin, 1901-1985), 영국의 비교역사학자인 크리스토퍼 도슨(Christopher Dawson, 1889-1970), “물질과 정신이 함께 진화한다는 통찰을 준”(213) 예수회 신부 피에르 테이아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 현대 신유학자인 투 웨이밍(Tu Weiming, 1940-), 공자孔子, 맹자孟子, 순자荀子, 주희朱熹, 왕양명王陽明 등.”(310-381) 또한 토마스는 포담대학교의 종교사 과정 초창기에 학생들에게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칠 정도로 힌두교 사상에도 익숙했다. “토마스 덕분에 학생들은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 곧 ‘신의 노래’와 같은 힌두교 경전의 원문에서 볼 수 있는 난해한 문법 변화를 상대할 수 있었다.”(172) 그는 또한 도교와 선불교에 대한 통찰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토마스의 관심사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세계 여러 곳의 토착민 전통에 대한 애착이 포함된다.(294, 382-412) 특히 “지구에 관한 토착민 전통”(382)은 토마스 전기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가 만약 한국을 알았다라면 그는 분명 한민족의 토착민 전통이 열매로 맺힌 동화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사실 토마스가 대학 강단에 서기 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마오의 군대를 피해 베이징을 떠나야 했던 토마스는 아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군중 신부로 지원했지만, 그의 임지는 오히려 서독으로 정해졌다.(104, 113) 1954년 마흔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봉사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희망했지만 아무 기회도 얻지 못했다.”(122) 토마스가 그의 누이 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은 다소 처절하다. “나는 이따금 낙서만 해 대고 있다. 너무나 방대한 분야의 연구에 뛰어들 게 잘못이다.”(122) 이러한 낙망은 이미 대학원 재학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그의 포부는 대단했다. “나는 이 시기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인간과 지구의 문제를 종합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든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모두 얻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94) 결과는?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가 쓴 첫 논문 「세계 종교의 맥락에서 본 역사의 해석에 관하여」는 혹평을 받고 심사에서 떨어졌다. “논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적절한 학문적 주석과 인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94)

그렇지만 그의 ‘종교의 역사’에서 ‘종교의 우주론’으로 이어지는 지적 여정을 살펴보면,(174) 그는 진정 대기만성(大器晩成)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첫 논문의 문제의식을 결코 놓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정체성에 확실한 변화를 가

저은 사건은 1978년에 세이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다. 나일강 위로 3만 피트 상공을 날면서 진화의 시간의 깊이를 숙고하던 중에 그는 문득 자신을 ‘지구학자geologist’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204) 나아가 그는 “종교 연구의 다양한 접근법이 과학의 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진화우주론이나 생물생태학 같은 데서 대두되고 있는 과학의 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그는 보았다.(174) 특히 젊은 과학자 브라이언 토마스 스위(Brian Thomas Swimme)과의 만남 가운데 토마스의 관심은 “‘종교의 우주론’에서 ‘우주의 우주론’으로 옮겨갔다. ‘종교의 역사가’에서 ‘지구학자’로” 변모한 것이다.(226)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는 ‘위대한 과업’으로 연결되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특히 토마스는 “‘지구법학’이라는 용어를 창안하고 그 핵심 개념을 여러 해에 걸쳐 설명하였다.”(245) “토마스는 지암바티스타 비코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던 당시부터 법체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비코는 법체계가 풍습과 관습과 사람들의 세계관에 가장 확실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그는 현실 법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태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모든 살아 있는 존재에 내재하는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246) 점점 ‘지구법학’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현실 생활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2008년, 에콰도르는 새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담기로 하였다.”(252) “2010년 12월, 볼리비아 최초의 토착민 대통령인 이보 모랄레스(Evo Morales)와 볼리비아의 ‘다민족 입법 회의’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253) “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은 2017년 3월 16일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법인격으로 인정되었다. 뒤이어 3월 21일에는 인도 북부의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이 고등법원에서 법인격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콜롬비아와 멕시코, 또 미국의 수십 개 주에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적 조항이 있으며, 그 외의 수많은 나라에서도 논의 중에 있다.”(254) 지금, 한국 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한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에 토마스가 미친 영향 또한 주목할 만하다. 회칙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인 “지구의 울부짖음,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이라는 말은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의 1995년도 저서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토마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 공동체를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상호 연관된 지구의 생명 시스템에 관한 이해와 통합시키고

자 하는” ‘생태와 정의’ 시리즈에 속한다. 보프는 지구를 배제한 채 사람들의 해방을 도모할 수 없다는 1980년대 토마스의 주장에 깊이 감화를 받았다.”(243)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에서 ‘통합 생태론’을 요청하는데, 이는 토마스가 1995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과 행성 지구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244)

이러한 토마스의 인생 역정 가운데 핵심 경험 중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책의 전반부에 소개되어 있다. “1926년 봄, 토마스는 자연 속에서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된다.”(50) 그해 “5월 초의 어느 오후에 그는 어빙 공원 근처 그린즈버러 북부에 새로 생긴 마을인 켈크우드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콜로니얼 애비뉴에 있는 그 마을에서는 그의 가족이 땅을 고른 후 새 집을 지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 토마스는 자전거에 올라탄 채로 집터 건너편 “무성한 풀밭 위로 흰 백합이 뒤덮인” 봄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풍경이 자아내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온몸이 굳어 버렸다.”(51) 하느님께서 지으신 자연에 압도된 것이다. “초원의 온전함이 상호 의존하는 다양한 생명체의 존재와 함께 그에게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할 복합적이고 아름답고 활기찬 생태계였다.”(52) 이것은 근래에 논의되는 ‘생태적 회심’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토마스의 재능보다는, 분명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다.

이러한 경험은 토마스에 있어 젊은 시절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진다. “나는 언제나 종교를 대자연과 연결시켰다. 교회는 여러 자연 현상의 의미와 상징으로 나를 인도하였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매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순간은 신성한 순간이 되었다.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이해하고 싶었다.”(82) 이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행성 지구의 창조에 집중하게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마땅히 고민해야 한다. “1985년 10월, 미사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세인트존더다바인]대성당의 거대한 청동 문이 열리고 코끼리, 낙타, 라마가 선두에 서고 30여종의 다른 동물들이 뒤를 따르는 거대한 행렬이 대성당 안으로 밀려들었다.”(224) 우리는 이러한 미사나 예배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토마스 이후 포담대 학교의 종교사 과정이 중단된 배경에는 물론 “가톨릭 신학과 교회 역사, 성경 연구만 줄기차게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161) 무엇보다 토마스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후

임자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유려하게 번역된 토마스 베리의 전기를 통해 한국에서도 그에 필적할 사상가가 탄생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